

# 이달의 닭관리



임 병 규

## 1. 계사내의 환경 개선

이달의 우리 나라 날씨는 몽고 지방에서 밀려 오는 대륙성 고기압이 여러 차례 장출하여 1월 못지 않은 추위로 기온이 영하 10°C 이하까지 내려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화중 및 화북 지방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우리 나라를 지나가기 때문에 포근한 날씨를 이루어 추위는 차츰 풀리기 시작한다. 또한 심한 복사 냉각으로 인한 짙은 안개와 황사현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기압골과 저기압의 통과로 대설형(大雪型)의 기압 배치가 형성되어 때 아닌 폭설을 퍼붓기도 한다.

이달 중 서울 지방의 기온은 최저 영하 13°C 까지 내려가는 날이 있는가하면 최고 9°C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어 기온의 일교차가 14°C의 폭을 나타내는 날이 있으므로 계사내의 기온을 조절하기에 무척 힘든 달이기도 하다.

산란계사인 경우, 이미 설치된 방한 시설은 아직 그대로 두고 창문의 개폐 부위를 조금 넓혀서 외부 기온이 높아질 때 창문을 더 열어서 기온이 내려가는 야간과의 교차가 넓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해야 된다. 계사내의 낮은도와 밤온도의 차를 최소한으로 좁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만일 계사내 기온의 일교차가 15°C를 넘는 날이 수일간 계속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육추사나 부로일러 육성사에서는 불규칙한 기상 조건을 타개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추사내의 난방 연료로서 연탄을 사용할 경

우에는 연탄가스(일산화 탄소)의 유출 및 유입에 주의한다. 참고로 연탄가스 중독과 기상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이것은 사람의 경우임) 연탄가스 중독 사고 발생 47건 중 저기압이 고온·다습·무풍 상태 하에서의 발생이 61.7%였으며 겨울철 삼한사온이 반복되는 중에서 사온기(四溫期)에 발생하는 사고율이 뚜렷이 많아서 89%나 되었고 특히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2. 스트레스와 그의 완화

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말하여 닭에게 지나친 긴장을 일으키게 하는 외부에서 오는 힘이라 할 수 있겠으며, 다시 말해서 닭이 외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시키기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장애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면 폐사에까지 이르겠지만 그 정도에 따라 성장은 물론 산란·항병력 등이 저하 및 약화되어 결국은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무리의 닭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없겠고 또한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양계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과 만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단시일내에 완화시켜 주도록 힘쓸 것이다.

스트레스를 엄밀하게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그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질병 및 기생충에 의한 스트레스(질병 발생, 기생충 감염, 예방 접종, 약물 투여)

② 관리에 의한 스트레스(급이 및 급수 장소의 불충분과 닭무리의 질서 문란 및 파괴, 기재 배치의 부적당과 닭무리의 균일성 결여, 그리고 부리 자르기, 이동 등)

③ 사료에 의한 스트레스(급여 사료량의 부족 및 불충분, 품질 불량, 변질 및 부패 영양분의 균형 상실)

④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고온, 한랭, 다습, 과도한 건조, 환기 불량, 기상의 급변, 바람)

⑤ 생리적 스트레스(성장 속도가 빠른 닭, 산란율이 높은 닭)

또한 양계가나 실제 관리자는 닭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닭이 된 기분으로 닭의 관찰과 동태 파악에 익숙하고 게으르지 말 것이며 만일 사료 섭취량이 줄든가, 활동이 민활하지 못하든가 산란율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예방 접종(특히 생독 백신 사용시), 부리 자르기, 닭의 이동, 기후의 급변 등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사건을 전후하여 3~4일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축용 항생제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류를 혼합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그릿트(모래)

제사에 운동장이나 사육장을 만들어 닭이 흙이나 모래를 마음대로 주어먹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릿트(모래)를 별도로 급여하지 않더라도 좋겠지만 최근 케이지 양계가 성행하고 또 평면 사육의 경우라도 바닥이 나무나 시멘트로 되었다든가 또는 겨울철에 영구 자릿깃을 넣어 주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그릿트 급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닭에 모래를 주어서 어떠한 영양분을 섭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적인 소화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시험에서 부로일러 사육시 사료 효율과 체중을 향상시켰다. 그릿트는 단단한 강모래로서 성계인 경우에는 왕사(부록 제조용) 정도가 적합하겠으며 병아리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대체로 1주일에 1회씩 마지막 모이를 준 다음 저녁 때 적당량을 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 4. 격리 사육

2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채란용 육추가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높은 육성율과 여러 가지 병균이 보균되지 않은 병아리를 육성해 내느냐에 있다. 특히 마렙병의 감염율이 8주령 이전(특히 0~2주령 사이)이 가장 높고 발병율이 그 이후 초산시에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육추사의 소독은 물론 성계와는 상당한 거리로 격리시켜야 하며 소독반을 꼭 설치하고 극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육추사내에 들어가지 말

고, 육추 관리자도 될 수 있으면 두문불출 시키도록 노력한다. 만일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육추사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육추사 전용 장화와 옷으로 갈아 입도록 해야 한다.

집단을 이루고 있는 전업 양계 부락과 양계 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곳, 또는 구성 조합에서는 성계사와는 아주 먼 곳에 육추 시설을 마련하여 공동 육추(육성)를 하는 것도 경영면이나 방역상으로 볼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채란 양계에 있어서는 육성업자로부터 100~120일령의 햇암닭을 구입하여 기르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채란계와 부로일러를 함께 사육하고 있는 곳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극히 살가해야 할 줄 안다.

### 5. 포르마린 개소독

비어있는 제사나 준비된 양계 기구를 소독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포르마린 개소독을 들 수 있다. 새 병아리를 기르기 위하여 깨끗하게 비어놓은 육추사일지라도 여러 가지 잡균이 모두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포르마린 개소독으로라면 보증할 수 있다고 본다. 병아리 받기 약 5~7일전에 소독을 할 것이며, 그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소독 장소를 비닐 등으로 밀폐시킨다.
- ② 온도를 약 30°C, 상대 습도를 70으로 한다.
- ③ 100입방척당 포르마린 35cc와 과망강산가리 17.5g을 준비한다.
- ④ 용기 그릇이나 스텐레스 그릇에 과망강산가리를 넣고 그 위에 포르마린을 넣는다.
- ⑤ 이때 강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특히 그 주위에는 인화질물이 없게하여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한다.
- ⑥ 포르마린 개소가 발생하면 약 7시간 이상 밀폐시켰다가 창문을 열고 암모니아 개소를 피우면 냄새가 없어진다.